17세기 在京 嶺南 官僚의 同道會와 결속 배경

-1601년 『영남동도회첩』을 중심으로-

나영훈 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위원

Ⅰ. 머리말
Ⅱ. '영남동도회' 구성원의 地緣과 學緣
1. 地緣: '상주' 중심의 다양한 지역 출신 영남인의 모임
2. 學緣: 퇴계 학맥 중심의 다양한 학맥 영남인의 모임
Ⅲ. 영남 관인의 '영남동도회' 참여도와 결속 배경
Ⅳ. 맺음말

※ 이 논문은 2021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호혜와 협동의 계보학 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임 (AKSR2021-RC01).

www.kci.go.kr

국문요약

본 연구는 1601년 당대 서울에서 관직 생활을 했던 영남 출신 인사들의 모임인 '영남동도회'를 검토한 결과이다. 이를 통해 당대 영남인들이 서울에서 회합한 목적과 의미를 추출하였다. 1601년 '영남동도회'에 참여한 구성원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영남 내에서도 '상주권'을 기반으로 하며 학문적으로는 퇴계 이황의 영향을 받은 이들로서 지역적, 학문적 인연이 닿아있는 이들 사이의 결속임을 확인하였다. 이들 구성원은 27명의 소수에 불과했지만 당시 서울에 올라가서 관직 생활을 하고 있던 영남사람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었다. 당시 관직을 할 수 있는 영남인들은 이보다 훨씬 많았지만 다양한 사유로 인해 서울에 없었던 경우가 있었고, 서울에 있던 영남인들은 대부분 이 모임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상주라는 지역성과 퇴계의 학문적 영향을 받은 이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정인홍과 가까운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영남 내의 다양한 지역성과 학문성을 지닌 이들도 함께 모여 있었다. 당시 영남인들이 규합해야 했던 이유는 영남인들의 입지가 줄어든 상황에서 상호 간의 어려운 처지를 공유하기 위한 모임이었을 가능성 역시 포함되어 있었다. 영남인들은 서울에서 '영남'이라는 지역성을 공유하였고, 그 인연은 서울에서의 생활에 중요한 결속의 장치로 기능했다. 더욱이 동향은 대체로 혈연과 학연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연대를 함께 하기에도 쉬운 집단이었음을 이 모임을 통해 알 수 있다.

주제어 동도회, 동향계, 재경향우회, 영남, 퇴계, 정곤수, 이호민

투고일자 2023년 3월 9일 **심사일자** 2023년 4월 5일 **게재확정일자** 2023년 4월 14일
https://doi.org/10.25024/jsg.2023.49.118

www.kci.go.kr

Ⅰ. 머리말

同鄕契는 같은 고향의 사람들이 특정 지역에서 만나는 모임을 말한다. 보통 동향계라는 용어보다는 **同道會**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같은 **道**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이다. 동향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윤진영이 선구라고 할 수 있다. 윤진영은 계회도를 분석한 성과에서 동관계, 동방계, 동경계 등과 함께 동향계의 성격을 소개하였다.[1] 특히, 동향계에 대해서 처음으로 유형 설정을 하였고 당시 안동지역에 전해지는 16세기 말~17세기 동향계회도 3종을 소개하였다.[2] 이어 최경훈은 『**三淸洞道會圖帖**』을 중심으로 현존하는 동향계회첩의 현황을 소개하고 이들의 특징과 성격을 소개하였다. 최경훈은 동향계를 "같은 고향 출신으로 한 분의 스승 아래 동문수학한 학연과 혼인으로 연결된 혈연을 바탕으로 관직 진출을 통한 치국평천하를 꿈꾸며 함께 성장했던 사람들의 모임"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7종 22점의 동향계회도를 확인하여 잔존하는 현황을 소개하기도 했다.[3] 한편, 강정화는 1634년 강대수를 중심으로 동도회첩을 분석하여 동도회의 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기도 하였다.[4] 이들 연구를 토대로 조선시대 동도회, 동향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앞선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17세기 영남 관료들이 상호 결속한 '동향계'의 성격을 검토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성과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동향계'는 존재만으로도 지역 출신 관료들이 고향을 떠나 서울에 올라와서 상호 간에 깊은 연대를 하였던 증거임을 알 수 있다. 지역민들의 서울에서의 사적 만남은 주로 동향인들과 함께 하였다.[5] 따로 집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京邸**에서 생활했던 만큼 자연스럽게 동숙하면서 친분을 다질 수도 있었다. 따라서, 당시 영남의 중앙 관인들의 친연성과 결속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친목과 결속을 자연스러운 전제로 하고 있는 동향인들이 중앙에서 굳이 별도의 계모임을 개최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계회도를 남긴 것은 단순히 친목도모를 위해 서울에서 모인 것일까. 본 논문은 '동향계'의 성

1) 윤진영, 「조선시대 계회도의 유형과 성격-안동 지역의 문중소장 계회도를 중심으로」, 『만날수록 정은 깊어지고』, 한국국학진흥원, 2013.
2) 1598년 「칠송정동회도」, 1654년 「보첩」, 1656년 「종남동도회제명록」이다.
3) 최경훈, 「조선 후기 **同鄕契會帖**과 『**三淸洞道會圖帖**』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83, 2020.
4) 강정화, 「한사 강대수의 동도회첩과 교유」, 『선주논총』 12, 2009.
5) 나영훈, 「16세기말 영남 관료 **李庭檜**의 인적 교류와 **同官契**의 실제」, 『대동문화연구』 118, 2022.

www.kci.go.kr

격을 이해하기 위해 이들의 결성 목적과 배경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1601년 결성된 '영남동도회'의 사례를 주목하였다. 이 모임은 성주 출신 **鄭崑壽**를 좌장에 놓고 27인의 영남인들이 모인 모임이었다. 당시 서문을 보면 이 모임의 목적으로, "영남인들이 서로 아끼는 정을 변치 말자."는 친목 결성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6] 그런데 당시 시대적 상황은 영남 출신 인사들에게 출사하기 좋은 시기는 아니었다. 영남의 대표 인사인 류성룡이 1598년 실각하고 연이어 정탁 역시 낙향하면서 영남 인사들의 정치적 주도권이 상실되었던 시기가 이 무렵이었기 때문이다.[7]

당시 결성된 '영남동도회'의 계원들과 그들의 관계, 그리고 당대의 정국 동향을 토대로 이 당시 계회가 지닌 목적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방 출신 관료들이 서울에 모여 화합한 배경에는 동향인들의 고향에 대한 회포를 푸는 목적이 일차적이겠지만, 당대의 지역과 학연이 결국 붕당으로 이어지는 속성으로 볼 때 일정한 정치적 성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물론, 하나의 사례를 통해 동도회 혹은 동향계의 성격을 모두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하나의 구체적 사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동향계가 지닌 또 다른 성격의 일부를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6) 서울에서 벼슬살이 하는 우리 영남인들이 **掌樂院** 새 관아에서 **同道會**를 만드니 참여한 이가 26명이고 때는 **萬曆** 신축년(1601, 선조 34) 초가을 7월이었다. **西川君 鄭相公**은 병으로 참여할 수 없었지만,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즐거워하니 이를 보고서 참가한 사람이 늘어났다. 회원들은 이미 각자 녹봉을 덜어서 기금을 모았으니 명단을 작성하여 행적을 후세에 남기려는 것이었다. 첫 줄에 서천군을 **幷錄**하여 이날의 일을 기록하도록 나에게 부탁하였다. 아! 영남의 선비 중에 조정에 벼슬살이한 사람이 예전에는 이 정도 숫자에 그치지 않았고, 이름난 선비, 현달한 대신, 뛰어난 수재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예전부터 비록 남았다가도 없어지고 또 모였다가도 흩어지는 것이 일정하지는 않았는데도,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아끼는 정 역시도 이러한 모였다가 흩어지는 **世態**에도 변하지 않으니 이 점이 가상하다. 이에 시를 적어 찬미하노라. 이호민, 『**五峯集**』 권4, 「**七言律**」, **題嶺南同道會題名卷 幷序**.

7) 이 시기 정국 동향은 구덕회, 「**宣祖代** 후반(1594~1608) **政治體制**의 재편과 **政局**의 **動向**」, 『한국사론』 20, 1988; 신병주, 「선조 후반에서 광해군대의 정국과 정인홍의 역할」, 『남명학연구』 11, 2001 등 참고.

www.kci.go.kr

Ⅱ. '영남동도회' 구성원의 地緣과 學緣

1601년 '영남동도회'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이 명단에 포함된 27명의 성분에 대한 이해와 이들 인적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먼저 이들의 세부적인 출신 군현을 분석하고, 이어 이들의 학문적 인연 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표 1〉은 '영남동도회'의 명부이다. 동도회 좌목에는 이들의 관직, 출신 군현이 소개되었다. 호와 본관, 학맥과 문과급제 여부는 필자가 별도로 조사하여 기록하였다.

표 1 1601년 '영남동도회' 구성원의 성격

관직	성명	성명	생년	출신	현재지명	호	본관	학맥	문과
서천군	정곤수	**鄭崑壽**	1538	성주	우도/경북 성주	백곡	청주	퇴계 문인	1576
제학	이호민	**李好閔**	1553	군위	좌도/경북 군위	오봉	연안	미암 문인	1584
호조참판	강신	**姜紳**	1543	상주	우도/경북 상주	동고	진주	-	1577
부호군	강연	**姜綖**	1552	상주	우도/경북 상주	청천	진주	-	1590
군자감정	윤엽	**尹曄**	1549	상주	우도/경북 상주	-	남원	퇴계 영향	1580
훈련원첨정	박응립	**朴應立**	-	영해	좌도/경북 영덕	-		-	무과
예조정랑	신지제	**申之悌**	1562	의성	좌도/경북 의성	오봉	아주	학봉 문인	1589
익위	강담	**姜紞**	1559	상주	우도/경북 상주	동곡	진주	-	-
울산판관	김택룡	**金澤龍**	1547	예안	좌도/경북 안동	와운자	의성	월천 문인	1588
사헌부감찰	권경호	**權景虎**	1546	함창	우도/경북 상주	만오헌	안동	퇴계 영향	-
성현도찰방	류중룡	**柳仲龍**	1558	거창	우도/경남 거창	어적	문화	덕계 문인	1600
중림도찰방	전우	**全雨**	1548	초계	우도/경남 합천	수족당	전주	탁계 문인	-
황간현감	오극성	**吳克成**	1559	영해	좌도/경북 영덕	문월당	함양	학봉 문인	무과
청산현감	이홍발	**李弘發**	-	김산	우도/경북 김천	-		-	-
창녕현감	박광선	**朴光先**	1562	고령	우도/경북 고령	소고	고령	내암 영향	1618
장기현감	권세인	**權世仁**	-	단성	우도/경남 산청	-	안동	한강 연관	-
사재감주부	권순	**權淳**	1564	함창	우도/경북 상주	남곡	안동	퇴계 영향	-
부사과	권주	**權澍**	-	함창	우도/경북 상주	화산정	안동	퇴계 영향	-
부사과	김혜	**金憓**	1566	상주	우도/경북 상주	송만	상산	서애 문인	1605
선공감직장	노도형	**盧道亨**	1571	상주	우도/경북 상주	-	광산	소재 영향	-
승문원저작	이민성	**李民宬**	1570	군위	좌도/경북 군위	경정	영천	학봉 문인	1597
교서관저작	권제	**權濟**	1548	단성	우도/경남 산청	원당	안동	남명 문인	1591

www.kci.go.kr

관직	성명	성명	생년	출신	현재지명	호	본관	학맥	문과
선공감봉사	신경익	**申景翼**	-	상주	우도/경북 상주	-	평산	우복 연관	-
예문관검열	이민환	**李民寏**	1573	군위	좌도/경북 군위	자암	영천	학봉 문인	1600
광흥창부봉사	조정	**趙靖**	1555	상주	우도/경북 상주	검간	풍양	학봉 문인	1605
제용감참봉	조우인	**曺友仁**	1561	함창	우도/경북 상주	이재	창녕	월천 문인	1605
승문원부정자	남복규	**南復圭**	1559	안동	좌도/경북 안동	-	영양	-	1600

본 명부는 철저하게 관직의 순서로 작성되었고 관직의 순차가 같은 경우 품계의 순서로 기록하였다. 정1품 품계의 보국숭록대부 서천군 정곤수를 필두로, 종2품으로 동일 순차의 관직인 제학 이호민과 호조참판 강신의 경우는 이호민이 품계가 정2품 상계인 정헌대부였고, 강신이 종2품 하계인 가선대부였기에 품계의 순서로 기술하였다. 다만, 강연의 경우 종4품인 부호군이 실직이었음에도, 정3품의 군자감정 윤엽보다 상위에 있었는데, 이는 강연은 절충장군으로 당상관이었고, 윤엽은 통훈대부로 당하관이었기 때문이다. 이어 관직의 순차를 중심으로 명단을 작성하였는데 이와 같은 원리에 정확히 부합하였다. 종6품직인 현감은 4명이었는데, 정4품 상계인 봉정대부 오극성을 필두로, 종5품 상계인 봉직랑 이홍발, 박광선, 종6품 상계인 선교랑 권세인의 순서였다. 마지막 종9품 관직인 부봉사 조정, 참봉 조우인, 부정자 남복규의 순서로 기록했는데, 이 역시 관품의 순서로 놓았다. 부정자인 남복규가 정8품 통사랑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순서에서 **外職**이나 **前職**은 고려사항이 아니었다.

한편 이들 명단에 수록한 관직자는 문관과 무관을 모두 포함하였다. 무관으로 훈련원첨정 박응립이 있었다. 또한 경직과 외직을 모두 포함했는데 외직은 판관, 찰방, 현감 등이 있었다. 또한 현직과 전직을 모두 포함했는데, 전직으로는 오극성, 이홍발, 권세인, 권순, 노도형, 이민환, 조우인 등 7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처럼, '영남동도회'에 속할 수 있었던 이들의 자격 기준은 영남사람으로서 중앙의 문반과 무반, 경직과 외직, 전직과 현직을 모두 포함하되 반드시 실직을 거쳤던 사람이어야 했다.

이제, 이 명단에 포함된 '영남동도회' 구성원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이들 상호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의 영남 내의 세부 출신지, 학연관계 등을 검토하겠다.

www.kci.go.kr

1. 地緣: '상주' 중심의 다양한 지역 출신 영남인의 모임

영남동도회는 영남지역 중심의 모임이라고 하지만 영남은 72개의 고을이 존재하였고 각 읍마다 별도의 학문적 전통과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8] 따라서, 이를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72개 군현을 각각 파악하기보다 각 권역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영남을 권역으로 구분할 때 진관체제로 구분하면 6개 권역으로 구분하며 계수관체제로 구분하면 4개 권역으로 구분한다. 각각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진관체제는 '안동진', '상주진', '대구진', '경주진', '진주진', '김해진'으로 구분되며,[9] 계수관체제는 '안동권', '상주권', '경주권', '진주권'으로 구분한다.[10] 안동권과 상주권은 유사하

그림 1 영남지역 진관 구분 및 소속 군현과 '영남동도회' 참여 인원

※ 박현순, 『조선 서원을 움직인 사람들』, 240쪽, 그림 2를 토대로 작성

8) 이수건,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1998, 1~14쪽.
9) 『경국대전』, 「병전」, 외관직.
10) 이존희, 「선초 지방통치체제의 정비와 계수관」, 『동국사학』 15·16, 1981, 107~108쪽, 〈표3〉.

www.kci.go.kr

며 대구진과 경주진은 합쳐서 경주권으로, 진주진과 김해진은 합쳐서 진주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는 진관체제에 따라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그림 1〉을 보면, '상주진'에 속한 인물로 상주 출신 8명, 함창 출신 4명, 성주, 김산, 고령 출신 각 1명으로 도합 15명이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안동진'에 속한 인물로 군위 출신 3명, 영해 출신 2명, 안동, 예안, 의성 출신 각 1명으로 8명이 포함되었다. 마지막 '진주진'에는 단성 2명, 거창, 초계 1명으로 4명이 포함되었다. 나머지 3개 권역인 '경주진', '대구진', '김해진'에 속한 인물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즉, 이 모임은 상주와 함창을 중심으로 한 '상주진'의 인물들이 절반 넘게 포함되어 있는 모임이며, 상주권과 가까운 거창, 초계, 군위 등에 속한 인물들로 구성된 모임임을 알 수 있다. 모임을 주도한 정곤수 역시 성주 출신이었다. 즉, 이 모임은 '영남동도회'라는 이름으로 뭉쳤지만 영남에서도 절반 정도의 지역에 속한 이들만이 참여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할 점은, 1601년의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보면 이미 경상좌도는 안동권의 퇴계 이황을 중심으로 한 '남인'과 경상우도는 진주권의 남명 조식을 중심으로 한 '북인'으로 학연이 정파로 이어진 계통의 분화가 있던 시기였다.[11]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우도의 '진주진'에 속한 거창, 초계, 단성의 관인들이 '영남동도회'에 참여하고 있었던 점은 흥미롭다. 이 점으로 보면 이 모임의 성격이 경상좌도의 이황을 중심으로 한 '남인'의 계파 모임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 모임은 실제로 영남 전역을 포함한 영남인들의 모임이었을까? 그렇다고 보기에는 대구권, 경주권, 김해권의 인물들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도 의문스럽다. 이에 대해서는 장을 달리하여 살펴보겠다.

한편, 이 모임에 포함된 인물들은 '영남동도회'에 자신들의 출신지를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 그 지역 출신인지 의문이 드는 인물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문과에 급제하거나 생원진사에 입격한 이들은 방목에 거주지를 적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가운데 정곤수, 이호민, 강신, 강연, 윤엽, 권순 등 6명은 방목의 거주지가 '서울'로 명시되어 있다.

정곤수의 경우 한강 정구의 친형으로 **生父**는 성주 사람이다. 따라서 정곤수는 1538년 성주의 외가에서 태어났다. 다만 6세에 당숙인 정승문에게 입양되면서 서울로 이사가게 되었다. 그럼에도 이후 성주의 생가를 자주 왕래하며 관계를 이어갔고

11) 남북분당에 대해서는 우인수, 「남북 분당과 서애 류성룡」, 『퇴계학과 유교문화』 55, 2014 등 참고.

www.kci.go.kr

본인 역시 성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12] 『문과방목』의 거주지는 정곤수가 문과 시험을 볼 당시 서울에 집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호민의 경우는 1553년 서울에서 출생하였다. 그럼에도 군위 사람이라고 명기한 이유는 이호민의 부친 이국주의 생부인 **李亨禮**가 군위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국주는 이후 경기에 거주했던 이세범에게 양자로 가면서 서울로 거처를 옮겼고 이호민 역시 부친을 따라 서울에 계속 거처를 두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부친 이국주를 따라 **生祖父**인 이형례의 고향인 군위사람으로 자처하고 있었다.[13] 강신, 강연, 강담은 형제이자 사촌 관계로 이들 역시 본인 대에는 모두 서울을 거처로 두고 있었다. 그러나 조부인 **姜溫**의 거처가 상주였고, 상주 추원재는 증조 강영숙과 조부 강온의 묘역에 건립된 공간이다. 강신의 양부인 강사안의 묘역도 상주에 마련될 정도로 이 집안은 상주와 인연이 깊었다.[14] 따라서 강신, 강연, 강담은 상주를 본향으로 여기고 영남동도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 즉, '영남동도회'에 자신의 거처를 영남이라고 적시한 이들은 실제 영남에 거처하지 않아도 영남과의 인연을 매개로 고향으로 인식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이처럼, 1601년의 영남동도회는 '상주'를 중심으로 하였으나 영남의 다양한 지역 사람들을 포괄한 모임이었고 더 나아가 서울에 거처를 두었지만 선대에 영남을 본향으로 둔 사람까지도 포괄한 다양한 지역성을 지닌 모임이라 할 수 있다.

2. 學緣: 퇴계 학맥 중심의 다양한 학맥 영남인의 모임

1601년의 '영남동도회' 구성원들은 다양한 학문적 토대에 있었다. 이는 이들 구성원이 영남 내에서도 다양한 지역의 출신들로서 해당 지역의 명사에게 학업을 연마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의 학문적 인연을 4개 범주로 살펴보면 우선 강좌 지역으로 알려진 경상좌도의 안동을 중심으로 한 퇴계 이황의 학문적 영향을 받은 이들이 있다. 여기에는 류성룡과 김성일, 조목 등의 영향을 받은 이들

12) 박인호, 「임진왜란기 백곡 정곤수의 정치, 외교 활동」, 『국학연구』 37, 2018, 210~211쪽.
13) 정경훈, 「오봉 이호민의 시문학 연구」, 『한문고전연구』 15, 2007, 74~78쪽.
14) 동고 강신과 그 형제, 사친인 강연과 강담 등의 본향은 상주였다. 이는 조부 강온과 종조 강준의 거주지가 방목상 상주로 표기되어 있고, 강신의 **養父**인 강사안과 조부 강온 등의 묘역이 상주에 조성되어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상주의 **追遠齋**가 진주강씨 찬성공파 종중재사로 이들의 세거지가 상주임을 알 수 있다.

www.kci.go.kr

을 포함한다. 다음은 강우지역으로 불리는 경상우도의 진주를 중심으로 한 남명 조식의 학문적 영향을 받은 지역이다. 조식은 물론, 정인홍, 오건 등의 영향을 받은 이들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서울과 경기지역의 이중호, 노수신, 유희춘 등의 영향을 받은 인사들이 있다.

1) 퇴계 학맥의 영향

퇴계 이황을 중심으로 이황의 제자로 알려진 조목, 류성룡, 김성일, 그리고 그들의 제자인 여헌 장현광, 우복 정경세 등의 영향을 받은 학자들의 일군을 '퇴계학파'로 정의하고 이들의 영향 관계에 있는 이들을 살펴보았다.

표 2 '영남동도회' 내에서 퇴계 이황의 학문적 영향을 받은 이들

학문적 영향	대상자
퇴계 이황	정곤수
월천 조목	김택룡, 조우인
서애 류성룡	김혜
학봉 김성일	신지제, 오극성, 조정, 이민환, 이민성
기타	윤엽, 권경호, 권순, 권주, 신경익

1601년 '영남동도회'는 퇴계 이황이 1570년 사망하고 31년 뒤에 결성된 모임이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이황에게 배웠다면 50세는 넘어가야 했을 것이다. 당시 이황의 문인으로 알려진 인물은 이 모임의 좌장이었던 정곤수가 유일하였다.[15] 이어 이황의 대표적 문인인 조목의 문하[16]에서 배웠던 김택룡[17]과 조우인[18]이 포함될 수 있다. 이

15) 「백곡선생연보」에 의하면, 정곤수는 소리재 이중호에게 초년에 수학하였고, 이후 도산에서 퇴계 이황에게 배웠다고 한다(박인호, 앞의 논문). 따라서, 정곤수를 이황의 문인으로 구분하였다.

16) 월천 조목의 문인에 대해서는 박동일, 『**月川 趙穆**의 **學問**과 **月川學團 硏究**』,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76쪽을 참고하였음. 박동일은 조목의 문인을 44명으로 확정하고 소개하였다. 이 글에서 월천 조목과 내암 정인홍 문인들의 친연성과 정치적 규합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17) 김택룡은 월천 조목의 문인이었다(조지형, 「조성당 김택룡의 예안 생활과 시조 창작」, 『국학연구』 35, 2018).

18) 조우인의 경우, 집안은 경남 합천의 창녕조씨가계로, 사촌 도촌 조응인은 내암 정인홍과 한강 정구의 문인이었고, 숙부인 조몽길은 남명 조식의 친우였을 정도로, 강우지역의 학자들과 친연성이 높은 가계였다. 그럼에도 조우인은 전처가 영천이씨 농암 이현보의 증손녀였고, 후취가 진성이씨 퇴계 이황의 증손녀로서, 모두 강좌지역과 연결되었다. 조우인의 문인 관계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월천 조목, 서애 류성룡, 한강 정구 등에게 감화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퇴계 이황의 영향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었다(박영주, 「사대부적 출처의식에 충실한 이재 조우인」, 『오늘의 가사문학』 20, 2019).

www.kci.go.kr

어 류성룡의 문인으로 알려진 인물은 김혜가 포함된다.[19] 마지막으로 김성일의 문인으로는 신지제,[20] 오극성,[21] 조정,[22] 이민성,[23] 이민환[24]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이처럼, '영남동도회'에 포함된 인물 가운데 9명은 '퇴계학파'의 영향을 받았던 인물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들 외에도 퇴계 이황과의 인연이 닿아있는 이들도 있다. 윤엽의 경우는 이황의 문인이었던 **尹曒**의 형이다. 윤엽 본인의 사승 관계는 자료의 부족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동생이 이황에게 배웠기에 형 윤엽 역시도 일정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어, 권경호와 그 아들 권순, 조카 권주의 경우이다. 권경호의 누이는 이황의 손자인 이안도와 혼인한 사이였다. 즉, 권경호는 이안도의 처남이 된다. 권경호의 아들인 권순에게 이안도는 고모부가 된다. 이처럼 권경호와 권순, 권주 등 안동권씨는 이황의 집안과 연결되어 있다. 사승 관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정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신경익의 경우는 본인에 대한 정보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지만 아들인 **申碩蕃**은 문과에 급제하였고 상주 일대에선 알려진 학자였다. 신석번은 정경세의 문인이다.[25] 따라서 신경익 역시 류성룡의 제자인 정경세와 일정한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윤엽, 권경호, 권순, 권주, 신경익 등 5인은 사승관계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혈연 관계 등을 토대로 보면 퇴계학파와 일정한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이들이다.

19) 『**松灣逸稿**』(김혜)의 서문을 참고할 것. 상주에서 우복 정경세, 창석 이준과 함께 서애 류성룡에게 학문을 배웠다고 한다.

20) 신지제는 영남의 다양한 인물들과 교유를 맺었고 다양한 이들에게 학문을 교습받았지만, 대표적으로 학봉 김성일을 스승으로 크게 의지하였다(김기엽, 「신지제의 수창시를 통해 본 영남 학맥 소통의 일단면」, 『어문논집』 89, 2020, 70~76쪽).

21) 김주부, 「오극성의 임란체험과 이순신의 행적」, 『이순신연구논총』 14, 2010.

22) 검간 조정은 한강 정구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이전에는 학봉 김성일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이는 검간이 학봉의 형인 약봉 김극일의 사위였기 때문이다(김시황, 「검간 조정 선생의 생애와 사상」, 『동방한문학』 16, 1999).

23) 이민성은 학봉 김성일에게 처음 학문을 배웠고, 이어 1603년 여헌 장현광에게 학문을 수학하면서 깊은 영향을 받았다(최재남, 「이민성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9, 2005, 76쪽).

24) 이민환의 경우도 이민성과 마찬가지였다. 초학은 김성일이 자리를 잡아주었고, 이후 류성룡에게 학문을 사사받기도 했다. 그러나 가장 큰 영향은 말년에 여헌 장현광을 만나서였다고 한다(우인수, 「자암 이민환의 시대와 그의 현실대응」, 『조선후기 영남 남인 연구』, 경인문화사, 2015, 291~293쪽).

25) 『우복선생문인록』에 따르면, 신석번은 우복 정경세의 문인이었다(채광수, 「우복학단의 성격과 계보학적 갈래」, 『한국계보연구』 10, 2020, 63쪽).

www.kci.go.kr

2) 남명 학맥의 영향

남명 조식을 중심으로 조식의 제자로 알려진 오건, 정인홍, 전치원 등의 영향을 받은 학자들을 이른바 '남명학파'로 통칭하고 이들의 영향 관계에 있는 이들을 추려보았다. 이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명 역시 1571년 사망했으므로 이 모임 당시 조식의 직접적인 제자가 되려면 적어도 50세는 전후한 나이여야 했다. 당시 조식의 문인으로 알려진 인물은 원당 **權澄**(초명 **權濟**)이 유일하였다. 〈덕천사우연원록〉에 소개된 바와 같이 조식의 문인이면서, **盧欽**에게 배우기도 했다.[26] 이어 정인홍의 문인으로 박광선이 있었고,[27] 오건의 제자로 류중룡이 있었으며[28] 전치원의 문인이자 아들인 전우가 있었다.[29] 이들은 모두 '영남동도회'에 참석했던 '남명학파'의 일원이라 할 수 있다. 모두 4명이 확인된다. 이 외에도 권세인이 단성의 유력한 사족으로 함께 학문 활동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의 행적은 알려지지 않았다.[30] 다만 그 아들인 상암

표 3 '영남동도회' 내에서 남명의 학문적 영향을 받은 이들

학문적 영향	대상자
남명 조식	권징(권제)
내암 정인홍	박광선
덕계 오건	류중룡
탁계 전치원	전우
기타	권세인

26) 『원당실기』.

27) 박광선의 경우는 내암 정인홍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인물이었다(설석규, 「조선시대 영남의 학풍과 고령사림의 동향」, 『퇴계학과 한국문화』 42, 2008). 그러면서도 외조부를 통해 조우인, 조응인과도 연결되어 있다. 특히, 조응인은 박광선의 외삼촌이 되며 그 아들 조정립은 외사촌 관계로 연결된다. 조응인은 합천의 내암 문인으로, 그 역시 대북에서 활동하는 인물이다.

28) 어적 류중룡은 덕계와 내암에게 배웠다(『덕천사우연원록』). 남명 조식과 덕계 오건의 문인인 **文緯**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 류중룡의 경우 정온, 문위 등 동일 지역의 '진주권' 학자들과 친연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물론 이들은 낙중의 정구, 장현광, 정경세 등에도 영향을 맺고 함께 활동하고 있었다. 오히려 정인홍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었던 것 같다. 다만, 류중룡은 동방급제인 상주의 정경세, 이전, 이준과도 도의지교를 맺었다고 한다. 이것이 류중룡이 '진주권'의 다른 내암 정인홍 영향에서 조금 빗겨설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9) 수족당 전우의 경우에도, 이호민, 이민성 등과 친교가 있었다고 하면서 초계를 중심으로 하여 정인홍, 노흠 등과의 관계가 밀접한 것은 당연하지만 좌도 사람들과도 친분을 유지했던 인물이다(김은영, 「초계향안을 기초로 한 초계지역 유력가문의 연구」, 경상국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전우는 탁계 전치원의 아들로서, 전치원은 남명 조식의 문인이기도 했다. 전우는 부친인 전치원에서 가학을 배웠다. 즉, 넓게는 남명의 영향에 있지만 가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인물이었다. 또한 설학 이대기에게 배우기도 했다. 이대기는 수우당 최영경의 문인이다.

30) 단성의 권세인 집안은 묵옹 권집, 상암 권준, 동계 권도 등이 현달하면서 집안이 부상하였다. 상암 권준과 묵옹

www.kci.go.kr

권준이 정구의 문인이었는데 당시의 정구는 조식의 문도로 분류될 만큼 그 영향은 남명학파에 있었다.[31] 이처럼, 남명학파의 영향을 받은 이들 역시도 5명이나 포함되어 있어, 적지 않은 수의 남명계 인물들이 '영남동도회'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서울 학문의 영향

앞서 거주지를 보았듯이, 1601년 '영남동도회'에는 서울 세거 영남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어린 나이나 부친 대부터 서울에 기거하고 있던 인물들이다. 대표적으로 이호민, 강신, 강연, 강담, 노도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자연히 영남 내의 유력한 스승에게 수학하기 보다는 서울 내의 학자나 가학을 통한 학문 연마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표 4 '영남동도회' 내에서 수도권 학문의 영향을 받은 이들

학문적 영향	대상자
소재 노수신	노도형
미암 유희춘	이호민
기타	강신, 강연, 강담

노도형은 노수신의 손자이자 노대해의 아들이다. 부친인 노대해는 일찍부터 노수신에게 가학을 전수받았다. 노도형 역시 조부 노수신이 생존할 당시 서울에서 가학을 전수 받은 것으로 보인다.[32] 또한 노도형은 처가인 해주최씨 최황을 통해 이중호의 학문을 접하기도 하였다. 즉, 노도형은 상주인이지만 노수신에게 입양된 부친 노대해를 통해 서울에서 학문을 접하고 상주로 내려왔던 것이다.

이호민은 문장에 있어서는 '영남동도회' 가운데 가장 돋보였다. 그의 문장 실력 때

권집의 부친이 권세인이다(손병욱, 「단성 지역 향촌 지배층의 형성과 동향」, 『남명학파와 영남우도의 사림』, 예문서원, 2004. 162~164쪽).

31) 한강 정구의 학문연원에 대해서는 김학수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김학수, 「한강 정구의 학문 연원」, 『한국학논집』 48, 2012). 한강 정구는 남명 조식과 퇴계 이황, 성운 등 다양한 학문적 연원과 계승 의식을 지니고 있다. 특히 정구는 남명 조식의 제자로 더 가까운 행보를 하였지만, 1607년 무렵 이황의 학통을 계승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즉, 1601년 당시로서는 한강 정구의 영향은 남명일파에 조금 더 가까웠을 것으로 보인다.

32) 『**秋潭先生文集**』; 상주문화원, '상주의 인물' 제6권, 노도형 참고.

www.kci.go.kr

문에 선조 역시 그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었다. 이호민이 동도회의 서문을 쓴 것 역시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의 실력 때문이었다. 이호민은 일찍부터 **李忠元**에게 학문을 배우다가 미암 **柳希春**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웠다.[33] 이황에게 배움을 청하려 했다가 실패했다고 알려졌듯이 그는 일찍부터 영남의 퇴계 학맥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고 또 그 적전인 류성룡을 흠모하였다. 그럼에도 그는 지리적 이유로 서울의 유희춘의 학문을 사사받게 되었다.

강신과 그 형제들은 **姜緖**(1538), 강신(1543), **姜紹**(1555), 강담이다. 사촌으로 강연이 있다. 이들은 상주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서울에서 세거하고 있었다. 따라서 서울에서 학문을 연마하며 그 영향을 받았을 것이지만 사승 관계가 드러나는 기록을 찾을 수 없다. 강신의 경우, 서애 류성룡과의 친연성이 드러나는 인물이지만 연배가 유사하였기 때문에 서애에게 학문을 배운 것은 아니라고 본다. 퇴계 이황과 강신의 접점은 찾을 수가 없다. 이는 동생 강담이나 사촌 강연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들 외에, 강신의 친형제인 강인과 강서의 경우를 살펴보아도 그들과 긴밀하게 결속한 이들은 찾을 수 있지만 사승 관계는 찾을 수 없다. 예컨대 강인의 경우 이정구, 이유간과 친밀한 사이였다고 한다. 이정구는 윤근수의 문인이며 이유간은 민순의 문인이다. 강인은 이유간, 이호민, 서성과 진솔회를 만들 만큼 친밀했다.[34] 강서의 경우도 이원익, 이호민, 조충남 등과의 친밀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호민과는 사돈 관계에 있었다. 이처럼, 이호민과 강신 형제들의 친분은 확인되지만 사승 관계는 확인할 수 없다.

4) 기타

사승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인물로는 박응립, 이홍발, **南復圭** 등이 있다. 박응립과 이홍발은 무신으로 그들의 기록 자체가 매우 영성한 까닭에 그들의 사승 관계를 짐작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분류를 하지 못했다. 남복규는 안동 출신으로, 문과에 급제하기까지 했으나 관련 기록이 거의 없다. 그가 소북 유영경의 당여로 분류되는 정치적 활동을 많이 했고 1608년에는 결과적으로 유영경의 몰락과 함께 갑산으로 유배를 떠난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35]

33) 『**眉巖先生謚狀**』에 의하면, 이호민은 송암 **李忠元**에게 학문을 배우다가, 퇴계에게 배움을 요청하러 갔으나 실패하고, 미암 유희춘에게 학문을 배웠다고 한다(정지훈, 「오봉 이호민의 시문학 연구」, 『한문고전연구』 15, 2007, 77쪽).
34) 『동원유고』; 『국조인물고』 권37, 「**蔭仕**」, **李惟侃 墓誌銘**.
35) 『광해군일기[정초본]』 권3, 광해 즉위년 4월 29일(을유).

www.kci.go.kr

이처럼 1601년 '영남동도회'의 회원들은 '퇴계학파'의 영향을 받은 이들의 학문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 외에도 '남명학파'의 영향을 받은 이들과 서울에서 학문을 연마한 이들도 포함한 다양한 학연을 지닌 이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퇴계 이황의 영향을 받았던 이들이 가장 많기는 했지만 남명 조식의 영향을 받은 이들, 그리고 이들과 동떨어진 서울에서의 학연을 이어간 이들 등 하나로 정의하기 어려운 다양한 학연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학문적 인연은 또한 대부분 지역적 관계와 매우 밀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상주를 중심으로 한 경상좌도의 인물들이 다수인 '영남동도회'의 회원들은 퇴계학파를 중심으로 포진되었고 일부 경상우도의 인원들은 남명학파의 일원에 포함되어 있었다. 서울에 거주했던 이들은 역시 서울에서 나름의 학연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퇴계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이미 월천 조목의 문인과 학봉 김성일의 문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 인물들 역시 포진되었던 만큼 학문적으로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학문적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영남동도회'로 모인 것은 흥미롭다.

즉, 영남인이라는 동질감 이외에는 몇몇 부류가 친족이거나 같은 군현이거나 같은 스승을 모신 인연으로 연결된 경우는 있지만 파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속성은 '영남동도회' 27명은 특정 계파나 학파로 분류하기 보다 '영남인'으로의 동질성을 공유한 집단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들이 하나의 조직으로서 '영남동도회'를 구성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또 이들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지을 수 있을까.

Ⅲ. 영남 관인의 '영남동도회' 참여도와 결속 배경

1601년 영남동도회는 앞서 보았듯이 매우 다양한 인적 구성들이 회합한 모임이었다. 지역적으로는 '**尙州人**'들이 주도적으로 보이지만 좌장격인 정곤수는 유일한 성주 사람이었고 그 외에도 지역적 분포는 다양했다. 이들은 모두 **實職**을 지니고 있는 이들이었는데 정곤수, 이호민, 강신만이 당상관이었고 모두 합쳐봐야 27명에 지나지 않았다. 당시 서울 조정에서 근무하고 있던 영남인들이 27명에 지나지 않았던 것인가?

www.kci.go.kr

수천명에 달하는 조정의 관료들 가운데 이들만이 영남인이었는가?

조선시대 전체 관인의 도별 비중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최진옥에 의해 약 4만 명에 달했던 생원진사시 입격자의 거주지 분포를 분석한 성과가 있어서 참고가 된다. 최진옥에 의하면 도별 생원진사시의 비중이 ① 서울 37.35%, ② 경상도 14.06%, ③ 충청도 13.42%, ④ 전라도 10.40%, ⑤ 경기도 9.81%, ⑥ 평안도 4.76%, ⑦ 강원도 4.11%, ⑧ 황해도 3.93%, ⑨ 함경도 2.08%의 비중을 보인다고 한다.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경상도가 14%가량을 차지하여 조선 전반에 걸쳐 5,399명의 생원진사가 존재했다고 했다.[36] 한편, 김인호에 의하면 영남의 문과급제자는 1,766명으로, 전체 문과급제자 14,687명의 12%가량으로 비중은 생원진사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유사하다.[37] 이로 보아 조선시대 전반적으로 조정의 관인 가운데 영남 출신은 10~15% 정도를 유지했을 것으로 보인다.[38]

『경국대전』 기준으로 조선시대 관직의 총수는 5,605개였고 녹관이 2,400개, 녹관 가운데 경관이 860개였다.[39] 즉, 전체 5,600여 개의 관직 가운데 10~15%라면 대략 560~840개 정도는 '영남인'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당시 활동했던 관직을 지닌 영남인이 못해도 500명은 있었다고 봐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서반 무록관도 포함되고 또 외직 역시 포함되어 있다. 중앙 경관직만을 헤아린다면 860여 개였고 그 가운데 10%라면 86개 정도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다고 하더라도, 1601년 당시 '영남동도회' 구성원 27명은 영남인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매우 적은 비중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실제 당시 영남 출신의 경관직을 대표하는 인사라고 볼 수 있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연히, 당대 조정에서 활동하던 '영남인'의 대략적인 분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1601년의 '영남동도회'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모임이 당대 '**在京嶺南人**'을 어느 정도 대표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당시 영남에 지역적 기반을 두었던 조정의 인물들을 파악하기 위해 『문과방목』의 거주지 정보를 검토하였다. 물론, 류성룡이나 정곤수와 같이 실제 영남인이었음

36) 최진옥, 『조선시대 생원 진사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4, 133쪽.
37) 김인호, 『조선시대 영남지역 문과급제자 연구』, 안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28쪽.
38) 물론, 본 논문에서도 확인되듯이, 문과방목의 거주지 정보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큰 범주에서는 오차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근거하여 문과급제자의 거주지 비중을 추정하였다.
39) 이성무, 『조선초기 양반연구』, 일조각, 1980, 377쪽.

www.kci.go.kr

에도 당대의 사정 때문에 거주지를 '서울'로 표기하거나 아예 표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문과방목』의 거주지 정보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嶠南科榜錄**』을 참조하여 영남인들을 추출하였다.[40] 당시 관인들의 거주지를 일률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제한적이나마 이들 자료를 토대로 당시 조정의 영남인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 또한, 당대 조정에서 관인으로 활동하던 이들 가운데는 문과에 급제하지 않고 무과나 **薦擧**의 방식으로 관료 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있었다. 따라서, 본 분석은 1601년 전후의 영남 중앙 관료의 전체 양상을 파악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조정에서의 핵심 관료가 '문과급제자'였고 거주지 정보로 드러나는 '영남인'은 실제 영남에 기반을 두었던 사람으로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1600년 전후의 대략적인 영남 출신 조정 관료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16세기 후반, 『문과방목』에 나타난 당시 생존해 있던 영남인은 모두 88명으로 파악된다. 앞서 〈그림 1〉에서 구분한 권역에 따라 분류하였다.

표 5 1601년 생존한 영남지역 문과급제자

권역	군현수	명수	군현명
안동권	17	33	안동(15), 의성(5), 예안(3), 풍기(3), **榮川**(2), 용궁(2), 예천(1), 군위(1), 평해(1), 봉화, 비안, 영양, 영해, 영덕, 진보, 청송, 순흥
상주권	9	25	상주(9), 성주(9), 선산(3), 김산(2), 함창(2), 문경, 고령, 개령, 지례
진주권	14	18	합천(5), 함양(3), 단성(2), 안의/안음(2), 진주(2), 삼가(2), 거창(1), 남해(1), 초계, 의령, 산청, 하동, 곤양, 사천
대구권	13	7	대구(2), 밀양(1), 창녕(2), 현풍(1), 영산(1), 의흥, 신녕, 인동, 칠곡, 하양, 경산, 자인, 청도
김해권	8	5	김해(2), 창원(2) 함안(1), 칠원, 진해, 웅천, 고성, 거제
경주권	11	0	경주, **永川**, 청하, 흥해, 연일, 장기, 언양, 울산, 양산, 기장, 동래
합계	72	88	

※ 안동권역의 평해, 영양, 순흥, 대구권역의 칠곡, 자인 5개 읍은 『경국대전』「병전」, 외관직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각 군현은 1601년 당시 존재하면서 해당 권역 인근에 있으므로, 각 권역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음.

당시 권역으로 보면 '안동권'이 가장 많은 문과급제자를 배출하고 있었고, 이어 경상우도의 '상주권'과 '진주권' 등으로 이어진다. 반면 '대구권', '경주권', '김해권'은 상

40) 『교남과방록』은 영남인 가운데 문과급제자를 조사하여 수록한 책으로 류성룡 등 문과방목에는 서울 거주로 적시한 인원들도 실제 영남인이 확인된 경우, 함께 수록되어 있어서 영남 출신 문과급제자를 파악하는데 용이한 자료이다.

www.kci.go.kr

대적으로 많은 급제자를 배출하지 못했는데 이는 지역적으로 서울과의 거리라는 물리적인 측면 이외에도, 안동의 퇴계 이황, 상주의 서애 류성룡과 우복 정경세, 성주의 한강 정구, 진주의 남명 조식이라고 하는 굵직한 학자들이 포진하고 있는 측면과도 관련되어 있다.

16세기 말 당시 안동권 인사들이 중앙정계에 주축을 이루고 가장 다수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 실제 1601년 '영남동도회'는 상주권 인사들이 주축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렇다면 안동권 인사들의 모임은 따로 있었던 것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88명 문과급제자들의 1601년을 전후한 시기의 거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거주지 분석 대상 문과급제자의 선정 기준은 1601년에 생존해 있는 인사 가운데 1601년 이전 관직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인물로 제한하였다. '영남동도회' 자체가 관직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과거 공부를 위해 서울에 있더라도 관직에 없었으면 대상자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문과 급제를 1601년 이후에 했어도 1601년 당시 천거 등으로 관직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은 포함하였다. 한편, 이 명단은 1601년을 기준으로 조정에서 활동할 수 있는 문과에 급제하고 또 관직 생활을 했던 영향력 있는 '영남인'의 전반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자료 검증은 실록, 방목, 문집, 일기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다만 몇몇 인물을 제외하고 1601년 7월, 영남동도회가 진행된 시점에 어디에 있었는가의 문제는 추정과 추론에 입각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불분명한 인물들의 경우가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는 '서울' 소재 여부를 토대로 논의해가도록 하겠다.

안동권역의 문과급제자 33명 가운데 서울에 거주한 것이 분명하였던 인물은 권태일, 남복규, 신지제, 이민성, 이민환, 김택룡 등 6명이었다. 이 가운데 권태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남동도회'에 참석하였다. 서울에 없던 것이 명확한 인물은 이공, 정탁, 권춘란, 이봉춘, 안담수, 김용, 류성룡, 이함, 금개, 금업, 황서, 김륵,[41] 김개국, 고상안, 윤국형,[42] 신흥립, 홍위, 권위, 이돈, 이광윤 등 20명이었다. 당시의 거취가 불분명한 이

41) 김륵의 경우, 1601년 3월 호조참판에 제수되었으나, 부모의 묘소를 수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상소를 올리고 하직하였다(김륵, 『백암선생문집』 권3, 「**疏**」, **乞修父母墓疏**, **戶曹參判時** ○**辛丑**).

42) 윤국형은 류성룡 일파로 지목되었고, 1598년 파직된 이후 복직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선조실록』 권107, 선조 31년 12월 14일(을축)).

www.kci.go.kr

표 6 안동권역 문과급제자의 1601년 당시 위치

구분	군현	이름	생년	급제년	당시 위치 추정	근거	참석 여부
1	군위	**洪瑋**	1559	1601	향내	미출사	미참석
2	안동	**鄭琢**	1526	1558	예천	선조실록	미참석
3	안동	**李珙**	1533	1573	향내	선조실록	미참석
4	안동	**安霽**	1538	1580	불분명(향내)	-	미참석
5	안동	**權春蘭**	1539	1573	청송	선조실록	미참석
6	안동	**李逢春**	1542	1576	예안	성재일기	미참석
7	안동	**柳成龍**	1542	1566	낙향(안동)	선조실록	미참석
8	안동	**權末卿**	1544	1574	불분명	-	미참석
9	안동	**權暐**	1552	1601	향내	성재일기	미참석
10	안동	**安聃壽**	1552	1603	경남 성현도	고문서(순흥안씨 갈전)	미참석
11	안동	**裵龍吉**	1556	1602	불분명	-	미참석
12	안동	**金涌**	1557	1590	선산(외직)	선조실록	미참석
13	안동	**辛弘立**	1558	1612	향내	미출사	미참석
14	안동	**南復圭**	1559	1600	서울	동도회	참석
15	안동	**李焞**	1568	1601	향내	성재일기	미참석
16	안동	**權泰一**	1569	1599	서울	선조실록	미참석
17	영천(영주)	**金玏**	1540	1576	향내(사직소)	백암집	미참석
18	영천(영주)	**金蓋國**	1548	1591	외직(옥천)	만취일고	미참석
19	예안	**金澤龍**	1547	1588	서울	동도회	참석
20	예안	**琴憐**	1557	1601	예안	성재일기	미참석
21	예안	**琴愷**	1562	1601	예안	성재일기	미참석
22	예천	**李光胤**	1564	1594	강원도	선조실록	미참석
23	용궁	**張翎**	1543	1576	불분명	-	미참석
24	용궁	**高尙顔**	1553	1576	지례	태촌집 연보	미참석
25	의성	**尹國馨**	1543	1568	향내(파직)	선조실록	미참석
26	의성	**李涵**	1554	1609	영해	운악집 연보	미참석
27	의성	**申之悌**	1562	1589	서울	동도회	참석
28	의성	**李民宬**	1570	1597	서울	동도회	참석
29	의성	**李民寏**	1573	1600	서울	동도회	참석
30	평해	**黃汝一**	1556	1585	불분명	-	미참석
31	풍기	**金九鼎**	1550	1582	불분명	-	미참석
32	풍기	**黃曙**	1554	1580	파주	선조실록	미참석
33	풍기	**秦溟鴻**	1559	1585	불분명	-	미참석

www.kci.go.kr

들은 권말경, 안제, 배용길, 김구정, 진명홍, 장령, 황여일 등 7명이었다.[43]

위치가 불분명한 인물들은 논의로 하고 명확한 인물을 대상으로 하면 26명 가운데 6명이 서울에 있었고 그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남동도회'에 참석했다. 이는 당시 안동권역 출신의 문과급제자들은 다수가 이 시기에 서울에 실제로 없었던 사실을 알려주며 서울에 있었다면 '영남동도회'에 참석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려준다.

당시 안동권역의 핵심 관료는 류성룡과 정탁, 윤국형, 김륵 등이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시기 향촌에 거처하고 있었음이 명확하다. 그 외의 인물들은 중앙에서의 영향력이 그다지 크진 않았다. 즉, 안동권역의 인사들이 영남동도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은 어떤 계파적 입장이나 지역적 특색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실제로 안동권역 인사들이 이 시기 대다수 낙향하거나 외부에 있었던 현실과 관계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류성룡과 연이은 정탁의 낙향은 안동 지역 인사들이 조정에서 활동하는 구심점을 사라지게 했을 개연성이 높다.[44]

다만, 서울에 있던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인 권태일은 구봉령의 문인이자, 권춘란의 양자이면서 김성일의 사위이기도 했다. 1599년 문과에 급제되어 **翰林**과 **弘文館**, **吏曹銓郎**을 거칠 정도로 엘리트 인사였다. 1601년 6월 22일 예문관 대교에, 9월 18일에는 봉교에 제수되었다. 안동의 여러 문도들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또한 정곤수의 동생 정구, 신지제 등과 친분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동도회 불참은 친연관계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상주권은 상주와 성주를 중심으로, 선산, 김산 등에서 문과급제자를 배출하였다. 상주권에 있던 인물은 모두 25명인데 이 가운데 1601년 당시 서울에 거주했던 것이 분명한 인물은 강신, 조정, 김광엽, 김혜, 조우인 등 5명이었다. 이 가운데 김광엽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남동도회'에 참석하였다. 서울에 없었던 것이 명확한 인물로는 이준, 전식,[45] 조익, 김홍미, 정경세, 김우옹, 배응경, 송원기, 송광정, 김응룡, 이언영, 최산립,

43) 당시 서울에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이유는, 당시 고령이었거나 주변 자료에서 인근 일자에 향촌에 거주했던 인물이거나, 당시 파직 등의 여파로 관직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던 인물들이다. 이들의 당시 위치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인다.

44) 이 무렵 중앙에서 활동했던 안동사람 송간 이정회의 일기인 『송간일기』의 분석을 토대로 당시 사람들이 지역을 구심점으로, 지역 유력 인사를 매개로 관직 활동을 하고 있음을 볼 때, 지역의 유력 인사의 낙향은, 여러 사유로 이들의 중앙 진출을 어렵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나영훈, 앞의 논문).

45) 이준과 전식은 상주의 유력 인사들이다. 당시 1599년 '낙사계'와 같은 향회의 참석에 이어, 1603년 존애원 중수와 같은 향촌 내의 굵직한 사안에 관여하고 있었고 또 이 기간 중앙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송석현, 「17세기 상주지역 사족의 동향」, 『영남학』 27, 2015). 이 때문에 향내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www.kci.go.kr

표 7 상주권역 문과급제자의 1601년 당시 위치

구분	지역	이름	생년	급제년	위치	근거	참석 여부
1	상주	**姜紳**	1543	1577	서울	동도회	참석
2	상주	**趙靖**	1555	1605	서울	동도회	참석
3	상주	**趙翊**	1556	1588	영남(사신)	선조실록	미참석
4	상주	**金弘微**	1557	1585	청송	선조실록	미참석
5	상주	**李埈**	1560	1591	향내	낙사계	미참석
6	상주	**金光燁(曄)**	1561	1590	서울	선조실록	미참석
7	상주	**全湜**	1563	1603	향내	낙사계	미참석
8	상주	**鄭經世**	1563	1586	상주	선조실록	미참석
9	상주	**金憲**	1566	1605	서울	동도회	참석
10	성주	**裵德文**	1525	1553	불분명(향내)	-	미참석
11	성주	**金宇顒**	1540	1567	인천	동강집 연보	미참석
12	성주	**裵應褧**	1544	1576	대구	안촌집 연보	미참석
13	성주	**宋遠器**	1548	1610	향내	고대일록	미참석
14	성주	**宋光庭**	1556	1585	파직(향내)	선조실록	미참석
15	성주	**金應龍**	1561	1585	외직	입재집 행장	미참석
16	성주	**宋光啓**	1566	1601	불분명(향내)	-	미참석
17	성주	**李彦英**	1568	1603	향내	완정집 연보	미참석
18	성주	**鄭樟**	1569	1612	불분명	-	미참석
19	선산	**崔山立**	1550	1591	광주	선조실록	미참석
20	선산	**崔晛**	1563	1606	선산	인재집 연보	미참석
21	선산	**盧景任**	1569	1591	선산	경암집 연보	미참석
22	김산	**呂大老**	1552	1583	외방	감호집 연보	미참석
23	김산	**李三省**	1564	1599	불분명	-	미참석
24	함창	**曺友仁**	1561	1605	서울	동도회	참석
25	함창	**崔挺豪**	1563	1603	불분명(향내)	-	미참석

최현, 노경임, 여대로 등 15명이며 배덕문, 송광계, 정장, 이삼성, 최정호 등 5명은 불분명하다. 배덕문은 당시 80세에 가까운 고령이었고 정장은 정곤수의 조카로, 서울에 있었다면 참석했을 것이다. 즉, 실제 행적이 불분명한 이들은 송광계, 이삼성, 최정호 등 3인 정도였다. 이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실제로 당시 서울에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당시 '상주권'의 핵심 관료들은 대체로 낙향하여 향내에 있었고 중앙에 있던 인물은 다수 이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당시 상주지역 인사들이 중앙과 지역을 막론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당시 성주권의 핵심은 상주와 성주로 양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상주는 강신과 김

www.kci.go.kr

홍미 등 당시 유력한 관료들을 포함하여 조정, 이준, 전식, 정경세 등 당시로서는 젊은 층에 속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한 인사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던 시기였다. 특히, 정경세는 류성룡의 제자이면서 관료로서도 현달하고 있었다. 정경세가 상주의 중심인물로서 당시 존애원의 설립 등 향촌 사회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시기였다. 안동권과 밀접한 거리감을 두면서도 1601년을 전후한 시기에 활발한 정계 활동을 펼친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당시 '영남동도회'를 주도하고 있는 활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주는 '영남동도회'의 좌장인 정곤수의 본향이다. 따라서 성주권역의 사람들이 '영남동도회'를 주도했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당시 성주인들이 서울에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 성주지역 유림은 '퇴계'의 영향과 함께 조식과 오건의 영향을 받은 이들이 많았던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46] 당시 성주는 정곤수, **鄭逑**, **金宇顒** 등이 대표적인 인사였다. 다만, 정곤수는 성주 출신임에도 양자로 입양되어 서울에서 생활했고 『교남과방록』에도 영남인으로 기록되지 않았기에 이 표에는 누락되었다. 또한 정구는 문과 출신이 아니었기에 이 표에 누락되었다. 물론 정곤수는 이 모임에 참여했고 정구는 1601년 10월, 횡성에 우거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당시에는 서울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우옹 역시 당시에는 인천에 우거하고 있었다. 이 외에 위치가 불분명한 정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당시 성주인들은 이 시기 실제 서울에 없었기에 모임에 참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처럼, 상주권역의 문과급제 인사들은 당시 서울에 실제 없었던 경우가 많았고 서울에 있던 경우에는 김광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남동도회'에 참여하고 있던 정황을 알 수 있다. 다만, 김광엽의 경우는 당시 서울에 있었고, 조정, 조우인 등과의 친분을 생각하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의아하다.

진주권은 합천을 중심으로 다양한 군현에서 문과급제자를 배출하였다. 안동권과 상주권을 이어 많은 인재가 이 시기 배출되었다. 이 시기 모두 18명이 있었는데 서울에 있던 것이 분명한 이들은 권제(권징), 박여량, 류중룡 3인이었다. 이 가운데 박여량을 제외하고 둘은 '영남동도회'에 참석하고 있었다. 서울에 없던 것이 분명한 인물로는 박이장, 문홍도, 문려, 박명부, 하수일, 박사제, 윤선 등 7명이었다. 당시 행적이 불분명한 인물은 정인함, 강익문, 이유함, 강린, 정홍서, 오적, 유택, 이희급 등 8명이다.

46) 황위주, 「16세기 성주지역 학술계의 동향」, 『국학연구』 37, 2018.

www.kci.go.kr

표 8 진주권역 문과급제자의 1601년 당시 위치

구분	지역	이름	생년	급제년	위치	근거	참석 여부
1	합천	**鄭仁涵**	1546	1601	불분명	-	미참석
2	합천	**朴而章**	1547	1586	외직	용담집 연보	미참석
3	합천	**文弘道**	1553	1588	외직	선조실록	미참석
4	합천	**文勵**	1553	1589	외직(창원판관)	선조실록	미참석
5	합천	**姜翼文**	1568	1606	불분명	-	미참석
6	단성	권징(권제)	1548	1591	서울	동도회	참석
7	단성	**李惟諴**	1557	1591	불분명	-	미참석
8	함양	**朴汝樑**	1554	1600	서울	선조실록	미참석
9	함양	**姜繗**	1568	1613	불분명(향내)	-	미참석
10	함양	**鄭弘緖**	1571	1628	불분명	-	미참석
11	안음	**吳續**	1545	1577	불분명	-	미참석
12	안음	**朴明榑**	1571	1590	외직(해주판관)	선조실록	미참석
13	진주	**河受一**	1553	1591	낙향(향내)	각재집 연보	미참석
14	진주	**柳澤**	1561	1585	불분명	-	미참석
15	삼가	**朴思齊**	1555	1589	외직(종사관)	고대일록	미참석
16	삼가	**尹銑**	1559	1588	외직(전라도)	선조실록	미참석
17	거창	**柳仲龍**	1558	1600	서울	동도회	참석
18	남해	**李希伋**	1553	1582	불분명	-	미참석

위치가 분명하지 않은 이들을 논외로 하면 행적이 분명한 10명 가운데 서울에 있던 이들은 3명이었다. 즉, 당시 진주권역의 인사들 역시 실제 서울에 없었기 때문에 '영남동도회'의 참여가 저조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지역 인사들 가운데 별도의 고려가 필요한 이들이 있다. 진주권역 자체가 진주를 중심으로 남명 조식의 넓은 영향력 아래 있었고 이 시기는 조식과 함께 정인홍의 영향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진주권역 인사들 가운데는 정인홍의 영향을 받아 문과에 진출한 이들이 다수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에는 있었어도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던 박여량의 사례에서와 같이 이들은 이미 류성룡과 뜻을 같이했던 인물이 다수였던 '영남동도회'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도 고려해야 한다. 정인홍과 유성룡의 알력은 이미 1598년 유성룡의 '주화오국'에 대한 정치적 평가로 낙향하면서 심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사제, 박여량, 문홍도, 문려, 정인함, 강린 등은 이미 정치적으로 정인홍을 지지했고 또 공개적으로 류성룡을 공격하기도 했다.[47] 따라서 당시의 서울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류성룡의 일파라고 여겨진 이호민이 주도한

www.kci.go.kr

'영남동도회'에 참석했을 것으로 보긴 어렵다.

반면, 진주권역 인사들도 '영남동도회'에 참석한 이들도 있다. 문과에 급제하지 않아 〈표 8〉에 소개되지 않았지만, 초계의 전우, 단성의 권세인이 있고 〈표 8〉에 포함된 거창의 류중룡과 권제 등 모두 4명이 있다. 류중룡은 오건의 문인으로 정인홍 등 대북 정권과 관계가 깊었지만 진사시 동방급제였던 정경세와도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1601년 당시까지는 '영남동도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 권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조식과 노흠의 문인이었지만 이호민 등 유성룡 일파와도 친분이 있었다. 이러한 교류는 지속되어서 1604년 영남동도회의 일종인 '**同話錄**'에도 참여하여 회재, 퇴계의 문인들과 정치적 행보를 함께 하기도 했다.[48] 당시 동화록의 명단은 권제의 『원당실기』에서 확인된다.[49] 권세인 역시 1604년의 모임에 함께 하고 있었기에 그 역시, 우도 사람이지만 정인홍보다 류성룡 쪽과 뜻을 같이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진주권역의 유력인으로 동계 정온이 있지만, 그는 당시 관직에 나가기 이전이어서 '영남동도회' 참여 자격에 포함되지 않아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대구권, 김해권, 경주권이 있는데 이들 지역은 인원이 매우 적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았다. 대구권에는 모두 7명, 김해권에는 5명, 경주권에는 한 명도 없어서 도합 12명이 3개 권역에 분류될 정도로 앞선 권역보다 문과급제자 수효 자체가 확연히 적었다. 이들 가운데 '영남동도회'에 참석했던 인물도 한 명도 없었다. 이들의 행적은 다수 불분명했는데, 행적이 명확한 안희, 김계, 오운, 손린, 이윤우, 손기양, 성안의 등 7명은 당시 모두 외직에 있거나 상중이어서 서울에 없었던 것은 분명하였다. 다만 그 외의 인물들 역시, 장순수, 김일준, 곽응기 등은 너무 고령이었고 사실 생존

47) 문홍도는 1598년 11월 이후 언관으로서 지속적으로 류성룡의 파직을 요청하고 있다(『선조실록』 권106, 선조 31년 11월 13일(갑오)). 특히 문홍도는 류성룡을 간사하며 국사를 그르치는 인물로 표현하며 강력히 규탄하였다.

48) 필자의 판단으로 「**同話錄**」은 1604년 5월의 '영남동도회'의 명단으로 보이며, 여러 문집에서 확인되듯이 이때의 모임은 회재 이언적의 문묘종사에 관한 정치적 요구를 위해 결속된 영남인들의 동향계였다. 당시 모임에 대해서는, 이민성의 『경정집』, 김륵의 『백암집』 등에 소개되어 있다. 『백암집』, "**五月 參同道會于訓鍊院. 時李爾瞻輩詆毁晦齋先生, 嶺儒上疏辨誣, 聖批優答. 仍命廷試疏儒 賜及第 先生與嶺中搢紳及儒生 設會以侈聖恩. 李五峰送詩以賀先生次其韻.**"

49) 1604년 5월 '**同話錄**'을 작성하여 38인의 교유인사를 기록했다. 이호민(군위), 성영(상주), 김륵(영천), 이광준(의성), 박이장(고령), 문려(합천), 이준(상주), 송광정(성주), 이민성(의성), 이민환(의성), 조정(상주), 송광계(성주), 남복규(안동), 이언영(성주), 신인의(삼가), 권세인(단성), 남진휘(상주), 이몽량(경주), 박천수(의령), 조성(영천), 신규(울산), 권제(단성), 오여발(영천), **尹調元**(안동), 남영(함창), 황준원(상주), **李涵**(영해), 송량(상주), 안극가(초계), 신의립(안동), 박종남(대구), 강홍량(상주), 김천영(선산), 권욱(예천), 정홍서(함양), 신경립(안동), 이종빈(의령), 유세온(초계) 등이 기록되어 있다. 영남 전역의 인사가 포함되었다. 즉, 권제는 이 시기 이들 인사와 교유가 활발했고, 여기에는 권세인도 포함되어 있다(『원당실기』).

www.kci.go.kr

표 9 김해권, 대구권, 경주권역 문과급제자의 1601년 당시 위치

구분	권역	지역	이름	생년	급제년	위치	근거	참석 여부
1	김해권	김해	**金逸駿**	1532	1564	불분명	-	미참석
2		김해	**安憙**	1551	1585	외직(장단)	입재집 행장	미참석
3		창원	**金洎**	1538	1582	외직(서흥)	선조실록	미참석
4		창원	**文行**	1549	1580	불분명	-	미참석
5		함안	**吳澐**	1540	1566	외직(대구)	선조실록	미참석
6	대구권	대구	**孫遴**	1566	1606	향내_미관	매산집 묘갈	미참석
7		대구	**李潤雨**	1569	1606	향내_상중	석담집 연보	미참석
8		밀양	**孫起陽**	1559	1588	외직(경주)	오한집	미참석
9		영산	**裵大維**	1563	1608	불분명	-	미참석
10		창녕	**張順受**	1529	1556	불분명	-	미참석
11		창녕	**成安義**	1561	1591	외직(영해)	선조실록	미참석
12		현풍	**郭應機**	1524	1574	불분명(향내)	-	미참석

여부도 파악되지 않기에 당시 영남동도회에 참석이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 문행, 배대유 등은 불명확하다. 이처럼, 김해권과 대구권 인사들은 당시 다수가 외부에 있었고 또한 행적이 불명확하더라도 대부분 고령으로 인해 서울에서의 관직자로서 '영남동도회'에 참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파악된다. 대구권, 경주권, 김해권 등은 문과급제자도 소수였지만 실제 당시 영향력을 미친 인물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시기였다.

당시 영남으로 지칭할 수 있는 경상좌도와 우도 지역을, ① 안동권역, ② 상주권역, ③ 진주권역, ④ 대구권역, ⑤ 김해권역, ⑥ 경주권역 등으로 나누어서 1601년 '영남동도회'가 수행될 당시 중앙에서 관직을 수행하며 거처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문과급제자 혹은 준비자' 88명을 추출하고, 이들을 토대로 1601년 당시의 서울에의 거처 여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88명 가운데 '영남동도회'에 참석한 11명을 제외한 참석하지 않은 77명은 당시 대부분 당시 외직에 나가 있거나 향내에 거주했었던 경우로 당시 서울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에서 기인한 경우가 다수였음을 확인하였다. 물론, 불분명한 인사들도 있었고 서울에 있는 것이 확실했었던 3명의 불참자를 확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하더라도 실제 1601년의 '영남동도회'는 당시 서울에서 관직 생활을 하던 영남인 다수를 포함하고 있었다고 본다.

www.kci.go.kr

물론, 일부 정치적으로 뜻을 달리하는 인사들의 참여까지 포괄할 수 없었다. 예컨대, 박여량의 경우와 같이 서울에 있었음에도 '영남동도회'에 참여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는 박여량이 내암 정인홍의 문인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합천을 중심으로 한 정인홍의 영향을 받은 '진주권역' 일부 인사들은 1598년부터 영남의 대표적인 인사인 류성룡에 비판적인 행보를 보이며 정치적 대립을 보이고 있었다. 당시 서울에 없기는 했지만 '진주권역'의 문홍도, 박사제, 정인함, 강린의 경우 역시 류성룡을 공격하는데 앞장선 인물들이었다. 1601년 '영남동도회'는 영남인 다수를 포함하기는 했지만 주도했던 인물은 류성룡과 친밀한 관계에 있던 정곤수와 이호민이었다. 이들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던 상황에서 정인홍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하는 이들이 서울에 있었다고 이 모임에 참여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는 박여량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모임은 특정 계파의 모임이기보다 당시 서울에 있던 영남인을 대표하는 모임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영남 내에서도 정인홍계의 합천지역 출신 일부만 이 모임을 거부하였다. 또한 류성룡과 친분이 있는 인사들로만 구성된 것도 아니었다. 이 모임에는 진주권역에서도 단성 출신으로 남명의 영향을 받은 권세인이나, 권제 등이 참여하기도 했고 거창 출신으로 오건의 문인인 류중룡, 초계 출신의 全雨가 참석하기도 했으며 정인홍과 관계가 깊었던 박광선까지도 이 모임에 참여했던 것이다. 또한, 안동권역 내에서도 류성룡과 대립 관계에 있던 조목의 영향을 받은 김택룡, 조우인 등이 이 모임에 참여하기도 했다.[50]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당시 적극적으로 대립했던 정인홍계 일부를 제외한 실제 당시 서울에 있던 영남인을 포괄적으로 합류시킨 영남을 대표하는 관인 모임이 1601년의 '영남동도회'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성격을 지닌 영남인들이 1601년 당시 모임을 추진했던 배경은 무엇인가. 1601년은 영남인들에게 정치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임은 당시 정국 동향을 분석한 여러 성과들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당시는 서애 류성룡, 약포 정탁 등 영남 안동 출신의 인사들이 낙향하면서 서울에 남아있는 영남인들 사이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이러한 시기 중심을 잡고 영남인들을 규합하기 위한 시도가 정곤수, 그리고 이호민 등에게 발현되었다. 이들은 당시 영남에 거주하지 않던 영남인까지

50) 조목과 류성룡의 대립은 1598년 조목이 북인계와 함께 류성룡을 '주화오국'의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갈등이 표면화되었고, 1600년 『퇴계집』 간행 당시에도, 조목계 중심으로 류성룡계와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박현순, 『16-17세기 예안현 사족사회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94쪽; 서정문, 「퇴계집의 간행과 월천, 서애 시비」, 『북악사론』 3, 1993).

www.kci.go.kr

규합하는 시도를 하는데 예컨대 이미 서울 지역에 자리한 이호민, 진주강씨 등을 포함하여 모임을 가진 것이다. 이는 그만큼 영남인들이 당대에 정치적 안정을 찾는 것이 과제였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1601년은 영남인을 포함한 남인들에게 정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당시의 정국 동향을 간단히 살펴보면, 선조 즉위 이후 1575년(선조 8) **東西分黨**으로 붕당 정치의 서막이 있었다. 연이어 1589년(선조 22)에는 **己丑獄事**, 정여립 사건이 발생하면서 **南北分黨**의 조짐이 있었다. 다만 동서분당으로 서인이 완전한 세력을 이룬 것과 달리 동인은 이미 1580년대부터 류성룡, 우성전, 김성일, 이경중, 정경세 등의 남인계와, 이발, 정여립, 정인홍, 최영경 등의 북인계의 명호는 있었으나 다수가 영남을 **本鄕**으로 동질감 역시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분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물론, 기축옥사는 동인 내에서도 북인계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고 이 사건 이후 서인계가 정국을 일시 주도하였으나 1592년 임진왜란 개전 직후의 책임과 1593년 서울 환도를 계기로 남인 류성룡이 서인을 포용하며 정국을 주도하기에 이르렀다. 이듬해 서인 정철이 기축옥사 당시 최영경을 억울하게 옥사시켰던 문제가 제기되면서 서인계가 대거 정국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남인을 중심으로 한 정국 운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1598년 9월, 류성룡이 실각하게 되면서 정국은 다시 북인계가 주도하는 상황으로 변모되었다.[51]

1598년 류성룡 실각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主和誤國**으로 임란 이후 일본과의 화친을 주장해 나라를 그르쳤다는 것이었다. 류성룡의 주화오국은 당대로서는 불가피한 것이었고 따라서 당시의 정치적 실각은 반대파, 즉 북인 세력에 의한 정치적 실각이었다는 점이 강조되기도 한다. 류성룡의 실각은 당시까지 주도권을 쥐고 있던 남인 세력의 실각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52] 당시 류성룡을 가장 강하게 공격한 이들이 북인 정인홍 일파였다. 이이첨, 문홍도 등에 의한 공격이 감행되었다. 결국 류성룡은 실각하였고, 류성룡의 일파로 거론된 정경세, 김수, 허성, 최관, 조정립, 김순명, 이호민, 윤국형도 함께 물러났다.[53] 1598년 10월부터 1600년 5월까지의 정국은 북인이 정권을 잡고 이끌어갔다.

1600년 5월, 류성룡을 낙향시키고 집권한 북인 역시 실각하였다. 북인의 실각은

51) 구덕회, 앞의 논문.
52) 김한신, 「1598년 유성룡 실각과 주화오국론 인식 분석」, 『역사와 담론』 95, 2021.
53) 『선조수정실록』 권32, 선조 31년 11월 1일(임오).

www.kci.go.kr

내부의 분열에 의한 것이었다. 1600년 당시 북인 내부의 분열은 기성세력인 이산해, 홍여순과 신진세력인 김신국, 남이공 등의 대립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대립은 대북과 소북의 정치세력으로 결집되었다. 이후 집권한 대북에서도 이산해의 **肉北**과 홍여순의 **骨北**으로 대표되는 대립이 또 발생하게 되었다. 북인 내부의 갈등은 결과적으로 모두 정계에서 소외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1600년 5월 선조는 대북 내의 이산해, 홍여순의 대립이 심화되자 두 사람 모두 처벌하고 이항복, 이헌국, 김명원을 정승에 제수하면서 서인 주도의 정국을 만들었다. 특히, 이조와 삼사 등 핵심 요직에 서인의 진출이 두드러졌다.[54]

서인은 집권 직후 민생 안정책을 펴며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였으나 1601년 6월부터 다른 정치세력의 진출을 견제하면서 독점적 세력 확대를 꾀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이들은 북인 이산해의 서용을 적극 반대하거나, 정철의 아들인 **鄭宗溟**의 서용을 시도하기도 했다. 1601년 7월은 이러한 위기적 상황에서 영남동도회가 결속된 시점이었다. 1601년 조정 고관 가운데 '영남인'으로 추정이 가능한 인물은 단 3명으로,[55] 이들은 모두 앞선 '영남동도회'에 이름을 올렸던 정곤수, 이호민, 강신 등 3명이다. 1594년 9월, 23인의 2품 이상 실직자 가운데 7인이 영남인이었던 이전 시기와 비교하면 확연히 줄어들었다.[56] 1601년 당시 조정에 남아있던 정곤수, 이호민, 강신은 모두 정치적으로 유성룡과 밀접한 친분이 있었던 이들이었다. 1598년 9월 유성룡 실각 이후 이호민은 그 당여로 몰렸고[57] 강신 역시 11월 시덥지 않은 이유로 파직되는 등의 고초를 겪었다.[58] 1601년 7월 '영남동도회'는 서인의 집권이라는 영남인들에게 좋지 않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모임을 가지게 된 것이다.

당시 영남인 가운데 성주 사람이자 남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녔던 백곡 정곤수와, 상주 사람을 자처했고 또 류성룡의 지지자였던 오봉 이호민이 주도하여 이 모임을 구

54) 구덕회, 앞의 논문, 254쪽, 각주 193번.

55) 당시 실록에 종2품 이상자 명단 42명이 수록되어 있다(『선조실록』 권139, 선조 34년 7월 4일(기해)). 조대곤 등 무신 6명을 제외하고 36명의 문과 거주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미상인 3명을 제외하고 모두 '서울'로 기재되었다(『문과방목』). 영남인으로 확신되는 이는 정곤수, 강신, 이호민 3인만 확인되는데, 이들 역시 문과 거주지는 서울로 되어 있다.

56) 류성룡 집권 시기인 1594년 9월의 2품이상 실직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선조실록』). 모두 23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문과방목』의 거주지가 영남으로 기재된 이는 정탁, 김륵, 김우옹 3인이며, 그 외에 류성룡, 정곤수, 윤선각, 성영을 영남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23명 가운데 7인(30%)이 영남인으로 확인된다. 이는 1601년과 비교할 때 확연히 높은 비중이다.

57) 『선조실록』 권107, 선조 31년 12월 14일(을축).

58) 『선조실록』 권107, 선조 31년 12월 17일(무진).

www.kci.go.kr

성하였다.[59] 즉, 당시 영남인의 모임은 남인과 북인의 정치적 주도권이 연이어 상실되고 1년이 지난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당시 중앙에서의 '영남인'의 현실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당대 정치적으로 성장할 개연성이 컸던 문과 출신 '영남인' 가운데 서울에 있던 이들이 거의 모두 참석하였던 것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기인한 바가 컸다고 보인다.

결론적으로, 1601년 결성된 '영남동도회'의 목적은 당시 정치적으로 실세의 위기에 놓인 영남인들이 정치적 생존을 위해 당시 중앙에 남아있었던 인사 가운데 가장 의지할 수 있었던 백곡 정곤수를 중심으로 영남인의 규합이 있었다. 이 모임은 절대 함께할 수 없었던 정인홍 일파를 제외하고 영남 내에서 정파와 학연을 넘어서는 영남인들의 인적 규합을 이루었다. 특히, 사실상 서울 출신이었던 이호민, 강신, 강연, 강담 등 출계가 영남에서 나온 남인 인사들까지 규합한 것은 당시 서울 내에서 영남 남인들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당시 영남인들의 모임은 단순한 친목 모임만은 아니었다. 연이어 진행된 1604년의 '영남동도회'에서 회재 이언적을 포함한 **五賢**의 문묘종사를 위한 정치적 움직임이 있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다.[60] 또한 각 참여 인물의 문집 연보에 '동도회'가 별도로 기재될 정도로 자신의 인생을 포함해 한두 번 정도의 모임 혹은 아예 없었던 경우도 있었던 흔치 않은 모임이었다. 이러한 **在京** 영남인의 '동도회'는 기본적으로는 영남인 상호 간의 친목과 결속을 위한 장치였고 그러한 친목과 결속 안에는 정치적 목적 역시 내재해 있었던 것이다.

59) 1598년 9월 류성룡을 '주화오국'의 미명 아래에 체차하면서, 북인들은 남인계 인사들에 대한 공격을 단행하는데 특히 1598년 11월 류성룡의 심복 9명이 지목되는데 **金睟**, **許筬**, 정경세, **崔瓘**, **金順命**, **趙正立**, **鄭毅**, **李好閔**, **尹國馨** 등이다. 이호민은 남인계 류성룡 심복으로 지목되며 1601년의 동도회를 주도한 인물이다(『선조수정실록』 권32, 선조 31년 11월 1일(임오)).

60) 1604년의 오현종사 시도를 포함한 당시의 동방오현의 문묘종사에 대해서는 이수환, 「16세기전반 영남사림파의 동향과 동방오현 문묘종사」, 『한국학논집』 45, 2011을 참고할 것.

www.kci.go.kr

Ⅳ. 맺음말

본 연구는 1601년 당대 서울에서 관직 생활을 했던 영남 출신 인사들의 모임인 '영남동도회'를 검토한 결과이다. 이를 통해 당대 영남인들이 서울에서 회합한 목적과 의미를 추출하였다. 우선, Ⅱ장에서는 '영남동도회' 구성원들의 성분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중앙에서 활동하는 관료였다. 이들은 영남 내에서도 지역적으로 '상주권' 출신의 인물이 과반을 차지했고 학문적으로는 퇴계 이황의 영향을 받은 이들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상주권, 학문적으로 퇴계학을 넘어선 인물들도 포함되었다. 지역적으로는 안동권과 진주권을 포함했고, 학문적으로는 남명 조식과 소재 노수신 등의 영향을 받은 이들도 포함되었다. 즉, 당시 영남동도회 구성원은 영남이라는 공통점을 지닌 다양한 성격을 지닌 사람들을 포함한 모임이었음을 확인하였다.

Ⅲ장에서는 당시 27명의 소수로 구성된 영남동도회가 영남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필자는 『**嶠南科榜錄**』에 기재된 당시 관직 생활을 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영남인들을 토대로 이들의 '영남동도회' 참여 정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불분명한 이들을 제외하면 외직에 있거나 향리에 거처하는 자들을 제외한 실제 서울에 있던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서울에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대표적으로 소수의 내암 정인홍 계열의 사람들은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는 이 모임이 영남 내에서 계파적 분화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이 모임을 통해 1601년 당시까지 영남인들은 여전히 정치적, 학문적 입장, 좌도와 우도의 지역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영남인이라는 취지에서 모였던 점을 보다 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다양한 성격을 지닌 영남인들이 이 시기 규합할 수밖에 없었던 결속의 배경을 살폈다. 물론 관료들의 상호모임인 계회가 당대에 매우 활성화되어 있었고, 그 기본 속성이 친목과 연대라는 점은 당연한 사실이다. 또한 각 계회는 계회마다의 개별적 사연에 따라 결성 이유가 천차만별이었다. 1601년의 영남동도회 역시 기본적으로 동향 출신의 친목모임임을 전제로 하여서 이와 함께 당시의 특수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결속되었던 사실도 확인하였다. 당시 영남인들이 서울에서 계회를 펼친 이유의

www.kci.go.kr

하나로, 1598년 류성룡이 낙향한 이후 영남인들의 입지가 줄어든 것과도 관련되어 있다. 이호민의 서문에 "영남인들이 일전에는 이렇게 적지 않았다."라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류성룡이 집권하던 시기와 비교하면, 영남동도회가 규합된 1601년 당시에는 서인이 집권하면서 영남인들 전체에 위기감이 고조되었던 상황이었다. 1601년의 '영남동도회'는 조정에 남아있던 영남인들이 자신들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일정한 연대감을 유지하기 위해 결속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영남동도회는 당대 서울에 상경해있던 '영남인' 다수를 포함한 모임이며, 당시 류성룡이라고 하는 영남의 대표적 유력 정치인을 잃은 시대적 상황에서 이들이 결속을 도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대 영남인들의 모임은 불가피한 것이기도 했다. 이들은 '영남'이라는 지역성을 공유하고 있었다. 동일 지역이라는 동향의 인연은 서울에서의 생활에 중요한 결속의 장치로 기능하기도 했다. 동향은 대체로 친족, 학연 등을 공유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정치적 연대까지도 연결되었다. 따라서 동향의 모임은 당시 서울 관직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모임임은 분명하다. 이는 영남동도회 구성원의 성격을 보아도 알 수 있는 문제이다.

이들은 학문적으로 다양한 기반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또 향후 정치적으로 남인과 북인, 또 소북과 대북 등으로 분화되어가지만, 1601년 영남동도회 당시까지만 해도 '동질성'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정치적으로는 동인, 학문적으로는 퇴계와 남명이라는 영남의 대학자와 연결되어 있었다. 물론 이 시기 이미 정치적인 분화가 나타날 조짐이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예컨대 1598년 류성룡의 낙향을 주도했던 이들 가운데, 내암 정인홍의 문인들 일부가 영남 내에서 계파적인 분화가 있었다. 그럼에도, 진주권역의 인사들 역시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들의 결속 역시 다양한 학문적, 정치적 기반을 지닌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당시로서는 동일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그보다는 당면한 문제, 즉 1598년 류성룡의 실각과, 1600년 정탁의 낙향으로 구심점을 잃은 영남인 내부의 규합이 더 필요했다. 이에 따라, 당시로서는 중앙에 남아있던 가장 유력한 '영남인'이었던 정곤수와 이호민, 강신 등을 중심으로 친목과 결속을 도모한다. 이들은 다수가 류성룡과 함께 남인에 포함된 이들이면서 영남에 재지적 기반을 지닌 인물이었다. 그리고 많은 조정 관료들 사이에서 정말로 몇 안되는 '영남 출신 관료'였던 것이다. 당시 이들의 결속은 불가피했다. 물론 동향계를 포함한 다수의 관료들의 계회나 모임은 단순 친목의 성격을 지닌 것들이 더 많았으며, 다

www.kci.go.kr

양한 목적에 따라 결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소한 이 시기 결성된 '영남동도회'는 순수한 친목과 결속의 목적을 포함하여서 일정한 정치적 목적 역시도 내재하고 있었던 점에서 흥미롭다.

www.kci.go.kr

참고문헌

강정화,「한사 강대수의 동도회첩과 교유」,『선주논총』12, 2009.
구덕회,「선조대 후반(1594~1608) 정치체제의 재편과 정국의 동향」,『한국사론』20, 1988.
김기엽,「신지제의 수창시를 통해 본 영남 학맥 소통의 일단면」,『어문논집』89, 2020.
김시황,「검간 조정 선생의 생애와 사상」,『동방한문학』16, 1999.
김은영,「초계향안을 기초로 한 초계지역 유력가문의 연구」, 경상국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김인호,『조선시대 영남지역 문과급제자 연구』, 안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김학수,「한강 정구의 학문 연원」,『한국학논집』48, 2012.
김한신,「1598년 유성룡 실각과 주화오국론 인식 분석」,『역사와 담론』95, 2021.
나영훈,「16세기말 영남 관료 **李庭檜**의 인적 교류와 **同官契**의 실제」,『대동문화연구』118, 2022.
박동일,『**月川 趙穆**의 **學問**과 **月川學團 硏究**』,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박영주,「사대부적 출처의식에 충실한 이재 조우인」,『오늘의 가사문학』20, 2019.
박인호,「임진왜란기 백곡 정곤수의 정치, 외교 활동」,『국학연구』37, 2018.
박현순,『16-17세기 예안현 사족사회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서정문,「퇴계집의 간행과 월천, 서애 시비」,『북악사론』3, 1993.
설석규,「조선시대 영남의 학풍과 고령사림의 동향」,『퇴계학과 한국문화』42, 2008.
손병욱,「단성 지역 향촌 지배층의 형성과 동향」,『남명학파와 영남우도의 사림』, 예문서원, 2004.
송석현,「17세기 상주지역 사족의 동향」,『영남학』27, 2015.
우인수,「남북 분당과 서애 류성룡」,『퇴계학과 유교문화』55, 2014.
우인수,『조선후기 영남 남인 연구』, 경인문화사, 2015.
이성무,『조선초기 양반연구』, 일조각, 1980.
이수건,『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1998.
이수환,「16세기전반 영남사림파의 동향과 동방오현 문묘종사」,『한국학논집』45, 2011.
이존희,「선초 지방통치체제의 정비와 계수관」,『동국사학』15 · 16, 1981.
정지훈,「오봉 이호민의 시문학 연구」,『한문고전연구』15, 2007.
조지형,「조성당 김택룡의 예안 생활과 시조 창작」,『국학연구』35, 2018.
채광수,「우복학단의 성격과 계보학적 갈래」,『한국계보연구』10, 2020.
최경훈,「조선 후기 **同鄕契會帖**과『**三淸洞道會圖帖**』에 관한 연구」,『서지학연구』83, 2020.
최재남,「이민성의 삶과 시세계」,『한국한시작가연구』9, 2005.
최진옥,『조선시대 생원 진사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4.
황위주,「16세기 성주지역 학술계의 동향」,『국학연구』37, 2018.

www.kci.go.kr

Abstract

Study on the Background of Solidarity of "Dongdohoe" which Consisted of Gyeongsang-do Bureaucrats in Seoul in the 17th Century

Na, Young-hun

This study is the result of reviewing the "Yeongnam Dongdo Society," a group of people from Gyeongsang-do who served in government offices in Seoul in 1601. Through this, the purpose and meaning of the meeting of public officials from Gyeongsang-do at the time in Seoul were found.

This study analyzed members of the "Yeongnam-dong Society" of 1601. They were specifically based on the region of Sangju (尙州) in Gyeongsang-do. Academically, they were influenced by Toegye Yi Hwang. Those members were only in a small number of 27, but they accounted for the majority of Gyeongsang-do people who went to Seoul and served in government offices at the time. There were far more from Gyeongsang-do who held government posts at the time, but most of them were not in Seoul for various reasons. This shows that most people from Gyeongsang-do in Seoul participated in the meeting. In addition, they were joined by people of various localities and academic characteristics from the same province.

The reason why people from Gyeongsang-do had to rally at the time was that they shared their difficulties with each other at a time when their position was reduced. For the officials from Gyeongsang-do, the ties made based on the same region served as an important device for solidarity in their lives in Seoul. As people from the same hometown generally made blood ties and academic ties with each other, it can be assumed that they could also easily form political solidarity as well.

keywords
Dongdohoe, a hometown meeting, a local friendship in Seoul, Gyeongsang-do

www.kci.go.kr